

생명나눔 알리며 나누는 '기쁨'

텔런트 남일우 김용림 부부

불교계 가장 대표 연예인 부부를 꼽으라면 텔런트 남일우 김용림 부부를 꼽을 수 있지 않을까? 두 사람은 오랜 연기 생활만큼이나 신실히 다져온 불심으로 똘똘 뭉친 도반이다. 불교가 기복 신앙을 벗어나 좀더 세상과 소통하고 나눌 수 있기를 바라는 두 부부는 생명나눔실천본부 설립 초기부터 홍보활동을 통해 장기기증의 중요성을 알리었다.

항상 마음속의 부처님을 모시고 있다는 아내 김용림 씨는 결혼을 결정할 때에도 남일우 씨와 종교가 같은 점에 후한 점수를 줬다고 한다.

"저는 불교가 모태신앙이고 어머니가 신실한 불자였죠. 그런데 연예생활 보니 남일우 씨네 집이 청량리에 있는 청량사를 다니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자연스럽게 남일우 씨와 가까워지고 결혼에 이르게 되었

죠." 김 씨는 불교방송 '신행 365일'을 25년째 진행하고 있다. 방송진행을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항상 포교라 생각한다는 김 씨.

"이렇게 오랫동안 진행을 하는 것이 부처님의 특별한 가르라고 생각을 해요. 보살님들이 저를 보고 방송 잘 듣고 있다며 존경을 표할 때는 그저 황송할 뿐입니다. 저는 마이크를 통해 부처님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일 뿐이예요."

김 씨가 불교방송 진행 10주년을 기념해 상으로 받았다는 인간문화재 박찬수 작가의 불상을 집안에 모시고 작은 법당을 마련했다는 부부. 둘은 지금 한 마음으로 매일 예불을 드리며 신행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남일우 씨는 한국불교가 좀더 현대화되어 젊은 사람들에게도 쉽게 다가가는 종교가 되었



으면 한다고 강조한다. "내 몸이 허락할 때까지 예불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바람이 있다면 가정에서 할 수 있는 현대식 예불이 개발되어 좀더 많은 사람들이 가정에서도 신행생활을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신이 가진 재능을 통해 부처님 법을 세상에 전하고 있는 남일우 김용림 부부. 그들은 오늘도 부처님께 공양올리는 마

음으로 하루하루를 지극히 살아가며 진정 아름다운 회향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있었다.

사랑의 끈으로 만나 평생의 도반이 된 '부부'

부부의 인연은 팔전겁이라 했다. 그 어마어마한 시간을 수없이 만나고 헤어지기를 반복해야 부부의 연을 맺을 수 있다고 하니 부부의 인연이란 참으로 귀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맺어진 부부가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다면 금상첨화가 아닐 수 없다. 신행생활을 통해 부부의 정을 돈독히 다져 가는 부부들을 만났다. 불교계 대표 연예인 부부 남일우·김용림 씨, 수행을 통해 불법을 전하고 있는 배광식·권수형 부부, 예술과 나눔을 실천해가고 있는 박애리·팝핀현준, 공존과 공생을 보현행으로 펼쳐가고 있는 이성희·정재원 부부를 만나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왔다.

매일 새벽 염불선... '금강 카페' 전법

서울대 배광식 교수·시인 권수형 부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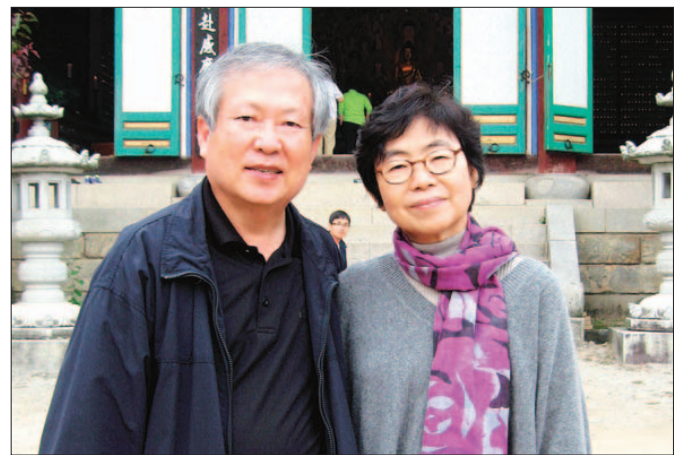
"바다에서 길이 열리듯/ 당신 안으로 걸어 들어가/ 허공이 됩니다/ 당신을 만나서 참 행복합니다."

시인 권수형 씨의 시집 <당신을 만나서 행복합니다>의 시 일부분이다. 남편인 배광식 교수(국제포교사회 명예회장)의 회갑 때 아내가 헌정한 시집이라 하니 참으로 애뜻한 부부애가 아닐 수 없다. 하지만 이들 부부는 세속에서 말하는 알콩달콩한 애정의 관계를 넘어서 있다. 두 사람은 철저한 수행자로

살아가고 있는 도반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대학시절 두 사람은 문학씨클에서 만났다. 당시, 수행 보살은 무종교였고 배 교수는 삼보법회에서 운허 스님의 <능엄경>과 <금강경>을 들으며 불교를 이상향으로 삼던 때였다. 이후 수행 보살은 배 교수를 통해 서서히 불자로 몰들어 갔고 7년 연애 끝에 결혼했다.

두 사람은 새벽에 일어나 염불선을 하는 수행자다. 수행 보살은 새벽 두시에 배 교수는 세시에 일어나 각각의 정해진 수행을 한다. 부부가 이렇게 발심을 한 것은 1985년 청화 스님과 인연을 통해서다. 배 교수는 "태안사에 계시는 청화 큰스님을 뵈자마자 이 생애에 성불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갖게 됐다"고 설명한다. 부부는 개인의 수행을 넘어 더 많은 이들에



게 불법을 전하고자 금강카페를 개설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통해 8년째 금강강화회와 철야정진을 이어가며 재가자들의 수행을 이끌고 있다.

권수형 보살은 "청화 큰스님께서 두 사람이 전생의 도반이었다고 말씀하셨다. 지금도 집안에서는 각각의 수행을 하면서 청화 큰스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는 도반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전한다. 현재 3차 천일기도를 진행중

인 금강카페는 충남 태안 쪽에 회원들과 함께할 수 있는 수행 공간 불사를 계획하고 있다고 배 교수는 전한다. "어떤 부부가 수행터를 희사해 주셔서 내년 즈음 불사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매월 철야정진을 할 때마다 전국에서 많은 불자들이 참여를 해요. 유독 부부 회원이 많은 곳이 저희 카페이기도 하죠. 수행 공간이 확보되면 더 많은 분들에게 수행의 기쁨을 나누어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국악과 힙합의 조화처럼 불심으로 장기기증 서약

국악인 박애리·비보이 팝핀현준 부부



힙합만 추던 남자와 국악을 하는 여자가 만나 결혼했다. 국악과 힙합의 만남으로 화제를 뿌린 팝핀현준 박애리 부부는 판타스틱한 무대와 나눔을 동시에 실천하며 부부애를 과시하고 있다. 두 사람은 얼마전 KBS '불후의 명곡'에서 아리랑 퍼포먼스를 통해 대중들의

사랑을 한 몸에 받았다. 또 최근 두 사람은 불교계와 생명나눔실천본부 장기기증 서약을 통해 인연을 맺으며 나눔활동을 실천하고 있다.

3년 전 국립극장에서 기획한 '뽀다 뽀다 타다'라는 퍼포먼스 공연에 함께 출연한 것이 이들의 첫 인연이다. 국악계의 이

효리라고 불리는 박애리 씨를 처음 본 순간 팝핀 현준은 첫눈에 반했다고 한다. 이렇게 시작된 만남은 최근 '불후의 명곡'을 통해 명창 박애리의 소리와 춤꾼 팝핀현준의 판타스틱한 무대를 만들어 내면서 그 빛을 발했다.

부부는 요즘 산사음악회 출연 섭외도 많이 받고 있다. 수석용문사 조계사 등의 음악회 무대에 함께 서고 있는 두 사람은 찬불가 보다는 대중들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아리랑 공연을 주로 하고 있다고.

사실 박애리 씨는 오랫동안 산사음악회에서 찬불가를 불러왔던 명창이기도 하다. "안숙선 선생님께서 부모님경쟁을 교성곡으로 부르실 때 뽀소리(코리)를 하기도 했는데 2005년부터 제가 직접 부르고

있죠. 그러다 보니 대만불광사에서 개최하는 무대에 서기도 했어요." 박 씨는 일찍 어머니가 돌아가신 탓에 부모님경쟁을 부르며 늘 어머니의 천도를 기도한다. 팝핀현준의 아버지는 암으로 세상을 떠나면서 시신을 기증할 만큼 나누는 일에 적극적이었다. "아버지를 평소 좋아하던 사찰인 심불사 수목장에 모셨어요. 그래서 늘 절에 가면 아버지와 함께 있는 듯해 편하고 좋아요"

극과 극 대적점에서 예술활동을 하던 두 사람이 만나 가장 아름답고 조화로운 무대를 연출한 팝핀현준 박애리 부부. 두 사람은 진정한 조화를 통해 세상과 더불어 살아가는 방법을 보여주고 있었다.

수행공동체 결성·환경운동 등 '공존·공생'의 삶 실천

교사 이성희·시민활동가 정재원 부부



이후 성희 씨는 학교로 복학해 임용고시를 준비했고 재원 씨는 인도, 필리핀 선재수련 등에서 봉사활동을 이어갔다. 또 두 사람은 제 3세계 어린이를 돕기 위한 대학생 봉사활동인 작은짜이집을 운영하고, 대학교 내 통일강좌와 열린 법회 활동을 하면서 꾸준히 나눔과 선행을 실천해 왔다. 이후 성희 씨는 초등학교 교사로 재원 씨는 군대 제대후 시민활동가로 활동하게 되었고 청년정토회 활동을 하면서 서로에 대한 믿음으로 사랑을 키우게 되었다.

"성희는 교사로 예코캠퍼스 운동을 하며 지렁이 퇴비 만들기, 쓰레기 제로 운동, 빈그릇 운동을 펼쳤어요. 무야 무소유

꾸미거나 포장하지 않아도 서로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 수 있었다는 두 사람. 끊임없이 소비를 요구하는 현대사회에서 나눔을 통해 소박한 삶을 실천해가는 이 부부는 매일 기도하고 1주일에 한번씩 가족 법회를 열어 공생과 공존의 의미를 이웃과 함께 나누어 가고 있었다.

하기책자 4권을 스님과 불자들에게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영가천도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이 책은 영가의 장애로 인하여 인생살이에 크나큰 고통과 타락을 받으며 살고 있는 많은 불자들을 위하여 7년여 동안의 경험을 토대로 어떠한 영가이든 100%천도가 이루어지는 영가천도의 묘법이 수록된 책자입니다.

"풍수원리를 잘 적용하게 되면, 그 가정과 사업체는 번영과 성장을 하게 되지만 이것을 무시하면 재난과 재앙이 뒤따른다는 풍수사상!"

12품 팔상탑주, 그 비법과 불가사의한 효험력

글쓴이: 해천법사

- 책자 안내**
- ① 인간의 길흉화복은 그 원인이 어디에서 오는 것일까?
 - ② 생활풍수의 영향으로 생기는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의 모색
 - ③ 팔상탑주는 어떤 원리에 의하여 조성되었는가?
 - ④ 팔계의 상징에 대한 설명
 - ⑤ 12품 팔상탑주의 종류별 설명
 - ⑥ 팔상탑주의 적용장소 및 사용방법과 신비스러운 효험력
 - ⑦ 팔상탑주에 대한 적용순서 및 적용방법
 - ⑧ 생활풍수 측면에서 알아두면 도움되는 주택풍수의 좋은 조건, 나쁜 조건
 - ⑨ 팔계만다라 역자의 신비

산소(음택)풍수의 중요성 글쓴이: 해천법사

- ① 풍수지리란 무엇이며,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 ② 조상님의 산소자리는 왜 명당이어야 하는가?
- ③ 조상님 산소자리를 생기가 도는 명당터의 토질로 변하게 하는 산소처방 비법은 무엇인가?
- ④ 이장의 문제점과 그 해결 방안으로서의 산소처방 비법?
- ⑤ 산소(묘)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관습에 대하여?
- ⑥ 본회의 산소처방 비법은 어떠한 경우에 적용하면 좋은가?
- ⑦ 산소처방을 한 후 일어난 신비스러운 현상들의 사례

삼담문의 및 책자신청 성지관음회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문형 3리 704-12(성지빌딩)
 전화 031)768-8414~6, Fax 031)768-8413

영혼의 세계 (빙의)

- 영가천도는 이렇게 해야 한다!**
- 영가천도를 행하는 사람이 영화 화면 보듯이 환하게 영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 일일이 환자의 입으로 영가의 이름, 나이, 성별, 빙의 년수, 살던곳, 가족인지 아닌지를 확인 할 수 있어야 된다.
 - 영가가 무엇을 원하는지 말하게 해야 한다.
 - 영가가 병든 상태인지, 다친상태인지등을 확인하여 치료해줄 수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의 병이 낫지 않는다.
 - 영가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갖고 싶은것, 먹고 싶은것을 물어서 원하는 것을 갖고, 먹게 해주어야 된다.
 - 예를들면 소주가 먹고 싶은데 맥주를 주면 영가가 토라져서 천도가 되지 않는다. (환자의 입으로 말한다)
 - 영가가 알아듣기 쉬운말로 설득을 해야 한다. 어려운 경문을 외우면 영가는 알아듣지 못한다. (살아있는 사람도 어렵게 얘기하면 못 알아듣는다)
 - 환자의 입을 통해 영가가 떠난다고 말하고 빛을 타고 가는 것이 환자가 볼 수 있어야 된다.
 - 조상영만 천도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영가를 확인해 보면 조상령 보다도 타 영가가 훨씬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 영가 천도제를 하고 나면 곧바로 병이 호전되어야 한다.
 - '비만' 같으면 그 자리에서 살이 빠지는 것이 확인 되어야 하고 육체적인 증상이 곧바로 개선 되어야 한다.
 - 먹는 음식이 절제가 되지 않고 살이 찌는 분.

불임, 자연유산, 우울증, 심장발작, 조울증, 강박증세, 환청, 환시, 귀신보임, 신들림, 불면증, 약물, 기위눌림, 현대의학으로 진단이 안나는 병, 몸에서 기운이 빠져 나가는 병, 병원 등을 수십군데 찾아다니고도 못고친 병으로 고생하는 분

- * 스님(수행하시는 모든분)오래된 고질병으로 고생하시는분.
- * 전생최면요법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 * 영가를 확인하면 어마어마한 사실을 알게된다.

천광수련원 ☎ 043)905-8275
 <충북 보은군 내북면 봉황리 223번지>